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



인성이란 도덕적,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리더십, 창의성, 협동심, 성실성, 근면성, 적극성,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인성은 오랜 기간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절함 행동도 몸에 익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인성을 형성하려면 장기적으로 매일 꾸준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가정에서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성교육은 '내 앞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께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나 자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 자녀는 '예의'와 '존중'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자녀의 성장 속도(심리적 변화)에 맞춰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학년인 경우, '오감'을 활용하여 직접 도덕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친구를 도와준 경험 등을 그림이나 역할놀이로 표현하여 '선한

행동'이나 '도덕' 등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고학년인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어떤 행동이 옳바르고 잘못된 것인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과 칭찬을 글로 전할 수 있도록 '감사노트' 또는 '칭찬노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칭찬과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인터넷 오디오방송 팟캐스트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를 통해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출연자: 강동완 전문연구원(한국인성연구원)

- 시즌4-39화: 인성은 갈고 닦는 것!
- 시즌4-40화: 면접에서 보이는 건 '인성, 태도'뿐!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Q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6학년 아들이 있는데, 장차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대학은 물론이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게임도 많이 하고 흥미도 높은 것 같은데, 제가 게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프로그래머에 대한 지식도 없다보니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구체적인 정보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프로그래머가 꿈인 자녀가 학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어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학업과 꿈 모두 균형을 맞춰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아직 어린 학생이다 보니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무조건 훈계하기만 하면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꿈을 반대하거나 잔소리를 한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우선 프로그래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자녀에게 자세히 안내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들 중에는 중학교 졸업이나 중퇴의 학력을 가진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는 자녀분처럼 굳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게임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구사해야 하므로 상당한 인지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프로그래머들의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야 하고, 공인대회에서 연 2회 이상 입상하면 프로그래머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후 프로그래밍단과 계약을 통해 정식 프로그래머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적성이나 능력으로는 집중력과 분석적 사고, 정교한 손동작과 빠른 신체반응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이나 컴퓨터, 장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적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통제 능력과 인내심, 끈기가 요구됩니다. 자기통제능력, 인내심, 끈기는 초·중·고 학교생활을 통해 학습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머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에도 참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어 능력도 갖추면 좋다는 것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프로그래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자기관리를 하는지 자연스럽게 소개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인 지금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했느냐에 따라 실력이 정해지겠지만, 추후에는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따라 실력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학생·학부모 진로상담 사례)

드림소식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청취방법

「진로레시피」를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다양한 청취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및 PC	‘커리어넷(www.career.go.kr)’ 접속 → ‘진로교육자료’ → ‘드림레더’ → ‘진로레시피’ 클릭	
	※ 팟빵, 유튜브에서 ‘진로레시피’를 검색해보세요	

맘에속 진로	‘맘에속 진로’ 앱 다운 로드 → ‘진로레시피’		
		안드로이드	아이폰
e-진로채널	‘e-진로채널’ 앱 다운 로드 → ‘진로레시피’		
		안드로이드	아이폰